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의 문법적, 어휘적 특징

이오리 이사오 (일본 도쿄 히토쓰바시 대학교)

일본에서 ‘쉬운 일본어’에 대한 관심은 1995년 한신-고베 대지진 이후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즉 일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종 재난 안전 정보 등을 원활하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어로 ‘やさしい日本語’라고 부르는 ‘쉬운 일본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언어적 소수자를 위한 ‘쉬운 일본어(Easy Japanese)’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어를 사용하지만 낮설고 복잡한 표현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평이한 일본어(Plain Japanese)’이다. 여기서는 언어적 소수자를 위한 ‘쉬운 일본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쉬운 일본어’에서는 동사구를 많이 사용한다. 명사구를 쓰는 것보다 동사구를 사용해서 말을 풀어 쓸 경우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는 특성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어에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구분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한자라는 문자의 장벽 때문에 한자어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쉬운 일본어’는 한자어보다 일본어 고유어,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어휘를 쓰는 것을 지향한다.